

러시아, 2010년 농약 사용량 증가

2010년 러시아에서 농약을 사용한 경작지의 면적이 7천320만 ha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7.6% 증가하였다고 러시아 시장조사기관 Agrostat가 밝혔다. 이 소식은 러시아 농업정보지(www.agroxxi.ru)에 실렸으며, 기사에 따르면 전체시장 중 제초제가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살균제와 살충제 총량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농약사용량 중 72.9%는 곡물재배에 집중되었으며, 사용 중 65% 이상을 제초제가 차지했다. 또한 살균제는 20.6%, 살충제가 12.8%로 그 뒤를 이었다. 종자처리제 시장은 2010년에도 45억2천2백만톤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이중 40% 이상이 겨울밀에 사용됐다.

러시아 농약시장은 국내제조가 44%, 나머지 56%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러시아의 농약기업의 순위는 러시아 국내제조사인 'ZAO Firma Avgust'(153 백만달러)가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로 신젠타(150백만달러), 바이엘크롭사이언스(113백만달러), 바스프(106백만달러)가 뒤따르고 있다. 이밖의 10위권내 회사로는 Schelkovo-Agrokhin(67백만달러), 듀폰 (53백만달러), Agro Expert Group(46백만달러), 다우아그로사이언스 (32백만달러), Saho(17백만달러), Cheminova(17백만달러) 등이 있다.



일본, 상반기 농약사용량 2% 감소

일본농약공업협회는 일본의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의 농약매출이 작년동기 대비 1.5% 감소한 2,536백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출하량은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0.7% 하락한 11만톤을 기록했다. (이하 성분량 기준) 지난해 9월말 기준에는 농약 가격이 단지 1.9% 하락 하였지만, 출하량은 6.1%까지 감소했다. 대부분의 주요작물에서 농약 매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했으며 기타 작물에서도 6.4% 이상 감

소했다. 일본의 농약시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수도용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0.1% 감소한 981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채소와 발작물용은 출하량 기준으로는 3.9% 증가한 4.8만톤을 기록하였으나, 매출액 기준으로는 2% 하락한 865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 매출이 늘어난 분야로는 식물생장조정제 분야로써 출하량은 12.5% 늘어난 1239톤을 기록하며 매출액 또한 7% 증가한 51백만달러를 기록했다.

■ 일본의 농약매출(2010. 10월~2011. 3월)

작 물	출하량(톤)	전년대비 증감	매출액(단위 : 백만\$)	전년대비 증감
수도작	41,666	-3.6	981	-0.1
살충제	6,269	-7.2	77	-1.7
살균제	4,238	-13.8	77	-10.4
살균·살충제	10,285	-0.1	261	+3.1
제초제	20,875	-1.7	565	+0.2
과수	14,266	-0.8	428	-1.6
살충제	7,092	+2.4	184	-1.4
살균제	4,664	-5.2	162	-3.3
살균·살충제	154	+4.1	2	+3.4
제초제	2,356	-1.0	80	+1.4
채소·발작물	48,222	+3.9	865	-2.0
살충제	25,368	-2.1	378	-5.9
살균제	15,815	+1.8	314	+1.3
살균·살충제	789	-29.8	10	-23.9
제초제	6,250	+4.2	164	+3.4
기타 작물	6,935	-11.6	189	-6.4
살충제	1,174	-25.8	31	-21.2
살균제	391	+7.4	22	+0.2
살균·살충제	354	-57.0	3	-54.6
제초제	5,016	-1.2	134	-1.1
그외 농약부문	3,204	-1.4	72	-1.2
생장조정제	1,239	+12.5	51	+7.0
살서제	26	0	<1	0
보조제	1,918	-8.5	20	-5.0
기 타	21	-25.0	1	-70.4
총 계	114,293	-0.7	2,536	-1.5

아르헨티나, 소면적작물 시험추진

아르헨티나 관계당국은 소면적작물에 대한 농약시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면적작물중에 등록이 안된 유효성분에 대해 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르헨티나의 국립수의검역원격인 Senasa(The national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에서 아르헨틴 대학교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와 공동시험 추진을 협약하였다. 이들은 채소와 허브 등 9종의 소면적작물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중에는 바질, 파슬리, 꽃상추, 시금치, 상추 등과 같이 병해충이 우려되는 작물이 포함됐다.

잔류시험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되며 이를 통해 잔류허용기준 (MRLs)이 설정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엽채류와 유채과와 같은 비슷한 작물군의 잔류허용기준(MRLs)을 설정하는데 활용이 된다. 유채과에 6종의 살균제와 3개의 살충제가 시험될 예정이고, 엽채류에는 살균제 8종과 살충제 10종(섭식저해제 1종 포함)의 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도, 2010년 농약사용량 18% 증가

인도의 2010년 농약시장이 17.5% 증가한 1,557백만달러를 기록했다고 Isagro Asia의 최고책임자인 Fartho Lahiri는 밝혔다. 이는 생조제 및 기타 농약분야는 제외한 추정금액이다. 인도의 전체시장 중 살충제는 가장 큰 55%를 차지하며 매출은 19.1% 상승한 860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살균제는 8% 상승한 340백만달러, 제초제는 전년도 시장의 사분지일에 해당하는 급격한 증가세를 통해 357백만달러를 기록했다. ㉞

■ 인도 농약시장 평가(매출액 기준, 백만\$)

구 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증감
살충제	723	860	+19.1
살균제	315	340	+7.9
제초제	288	357	+23.9
총 계	1,326	1,557	+17.5

